

샤를 페로 (1628~1703)

프랑스의 시인이며 소설가이자 17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비평가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변호사로 일하다가 1654년 이후 문학과 그림을 즐기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다. 1670년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었고, 특히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집회에서 낭독한 시 〈루이 대왕의 세기〉(1687)는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의 이른바 ‘신구논쟁’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거위 아주머니 이야기〉(1697년)는 페로가 손자들을 위해 민담을 빌어 쓴 것으로 이 동화집 안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푸른 수염〉, 〈빨간 모자 소녀〉, 〈신데렐라〉, 〈장화 신은 고양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동화집은 현실과 꿈의 세계가 잘 조화되고 간결한 문체 속에 재치가 빛나고 있다.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옛 이야기를 품위가 없다면서 무시했지만, 페로는 옛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어린이들에게 들려 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프랑스 아동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화 신은 고양이」

한 남자가 아버지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유산으로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고양이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애완동물로,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고양이는 새로운 주인을 위해 기발한 꾀를 내는데...

〈장화 신은 고양이〉 속의 독특한 등장인물인 말하는 고양이는 오늘날에도 여러 작품에 영감을 주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빨간 모자 소녀」

한 소녀가 할머니로부터 빨간 모자를 선물 받는다. 소녀는 이 빨간 모자를 아주 좋아해서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얻는다. 어느날 빨간 모자는 편찮으신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숲 속에서 늑대와 마주친다. 낯선 이와 말하지 말라는 엄마의 주의를 잊어 버린 빨간 모자는 배고픈 늑대가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답하는데...

〈빨간 모자 소녀〉는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오늘날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장화 신은 고양이

【제1장】 늙은 농부와 세 아들

p. 12-13 옛날 옛적에 한 늙은 농부가 살았다. 그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일이 노인에게는 너무 힘에 부쳤다. 농부는 매우 아파 침대에 앉아 누웠다. 그는 아들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아들들아, 내 수명이 여기까지구나.” 그가 말했다. “자,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첫째 아들이야, 너는 이 농장을 맡거라. 둘째 아들이야, 너에게 내 말을 남겨 주마. 셋째 아들이야, 너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를 남기마. 너희들 각자 좋은 삶을 살길 바란다, 내 아들들아.” 그리고 나서, 농부는 눈을 감았다. 그는 조용하게 죽었다.

p. 14-15 곧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갔다. 첫째 아들은 농장에 남았다. 둘째 아들은 마을을 떠났다. 그는 말을 가지고 갔다. 셋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생각했다. “이 고양이로 무엇을 하지? 난 내 자신과 고양이를 돌봐야 해.” 보다시피 그 고양이는 단순한 고양이기가 아니었다. 그 고양이는 말하는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말했다. “주인님, 전 주인님의 아버님에게 질했어요. 당신에게도 잘할 거예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주인님. 전 주인님의 특별한 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p. 16-17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인이 물었다. 고양이기가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에요. 첫 번째로 전 깃털이 달린 모자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전 장화 한 켤레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전 작은 가방이 필요해요.” 고양이기가 설명했다. 그 날 오후, 주인은 쇼핑을 갔다. 그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고양이를 믿었다. 주인은 그 세 가지 물건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들을 고양이에게 주었다. “여기 네가 원했던 거야.” 주인이 말했다. 고양이는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었다. 고양이는 꽤 잘생겨 보였다. 주인은 행복했다. 그는 그의 고양이를 장화 신은 고양이라고 불렀다.

p. 18-19 날, 장화 신은 고양이는 사냥을 하러 나갔다. “주인님, 이따 뵈게요.” 장화 신은 고양이가 말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숲 속으로 들어갔다. 토끼를 잡는 것은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쉬운 일이었다. 그는 새와 다른 동물들도 잡았다. 숲 속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날 늦게, 장화 신은 고양이는 토실토실하고 살찐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이제 국왕님을 찾아 뵈는 시간이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생각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왕의 성으로 걸어갔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큰 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국왕님을 만나 뵈고 싶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가 말했다.

p. 20-21 문지기는 놀랐다. 그는 전에 말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전 카라바스 후작의 하인입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가 말했다. 전 국왕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그 남자가 말했다. 그는 국왕을 만날 수 있게 장화 신은 고양이

를 들어 보냈다. “폐하,”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이 토실토실한 토끼를 선물로 받아 주십시오. 그것은 제 주인인 카라바스 후작이 보낸 것입니다.” “고맙다. 너는 참 친절하구나.” 국왕이 말했다. 난 이 카라바스 후작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네 주인에게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거라,” “네, 폐하. 물론입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대답했다.

“곧 또 오겠습니다, 폐하.”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덧붙였다. 이후에 장화 신은 고양이는 종종 성을 방문했다.

【 제 2 장 】 장화 신은 고양이. 작업에 들어가다

p. 24-25 방문할 때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다. 국왕과 왕비는 감명을 받았다. 이것은 모두 장화 신은 고양이의 계획의 일부였다. 수개월 후에, 국왕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화 신은 고양이를 알게 되었다. 모두가 장화 신은 고양이를 좋아했다. 국왕과 왕비도 장화 신은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 어느 날, 국왕이 말했다, “카라바스 후작을 만나고 싶구나. 그는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어. 그는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고기를 주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폐하. 저희 집에 방문하시겠습니까?”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물었다. “좋다, 우리가 다음 보름달이 뜰 때 가겠다.” 국왕이 말했다. “제가 주인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p. 26-27 보름날에 국왕은 마차에 타기로 계획했다. 왕비와 공주도 그와 함께 갔다. 그들은 카라바스 후작을 보고 싶었다. 국왕의 딸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다. 국왕은 그녀가 좋은 남자와 결혼 하길 바랐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자기들을 방문하려는 국왕의 계획을 기억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또한 그 아름다운 공주를 만났었다. ‘그녀는 주인님의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생각했다. “주인님, 오늘 국왕님과 그 가족이 오십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주인님은 자신이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말해야 해요. 이것이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주인님.”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p. 28-29 “수년 전에, 주인님 아버님은 아버님의 성에 살았습니다. 가족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가족은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원숭이 인간이 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가 말했다. “그는 매우 못됐어요.” “아, 정말?” 카라바스 후작이 말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혀 말해 주지 않으셨어.” “주인님 아버지는 이 비밀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그것이 주인님 아버님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장화 신은 고양이야.” 카라바스 후작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성에 갈 것입니다, 주인님.”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국왕과 그의 가족에게 만찬을 함께하자고 청하세요.”

p. 30-31 그리고 나서 장화 신은 고양이는 주인을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작은 강가를 걸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국왕이 그 길로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그들이 주인 성에 도착하기 전에 국왕이 자신들을 보기를 원했다. 강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다. 다리 밑에는 물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다. 카라바스 후작은 다리 한가운데를 걸었다. 그는 옆쪽으로 꽃들을 보았다. 갑자기, 카라바스 후작이 물속에 빠졌다. “나는 수영을 못해. 도와줘!” 후작이 외쳤다. “제가 도움을 청할게요, 주인님. 저를 믿으세요.” 장화 신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길로 제

빠르게 뛰었다.

p. 32-33 그때, 그는 국왕의 마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마차가 왔을 때, 국왕은 목소리를 들었다. 국왕은 창문 밖을 보았다. 그는 장화를 신고 모자를 쓴 한 마리의 고양이를 보았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주인님이 물에 빠졌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가 외쳤다. 카라바스 후작은 정말로 강물에 빠져 있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 무슨 일인가?” 국왕이 물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자신의 주인이 물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수영하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신하들아, 가서 카라바스 후작을 찾아라,” 국왕이 말했다. 국왕의 신하들은 후작을 구했다. 곧, 후작은 기분이 나아졌다.

[제 3 장] 카라바스 후작, 행운을 찾다

p. 36-37 국왕은 신하 두 명을 성으로 보냈다. 그들은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새 옷을 가지고 돌아왔다. 옷은 매우 좋았다. 후작은 전보다 더 잘생겨 보였다. 그는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하.” 카라바스 후작이 말했다. “마침내 자네를 봐서 기쁘군.” 왕이 말했다. 우리는 자네 고양이로부터 자네에 대해 많이 들었다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우리 성의 단골 방문객이란다. 우리랑 같이 가세, 카라바스 후작. 우리는 자네를 찾아가는 길이었네.” 국왕이 말했다.

p. 38-39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카라바스 후작은 말했다. “부디 오늘 밤에 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해주시길 청합니다. 우리는 제 성에서 먹을 겁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가는 길을 마부에게 말해 주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국왕에게 자신의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원숭이 인간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내가 먼저 앞서 가야 해. 주인님의 도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해.’ 장화 신은 고양이가 생각했다. 가는 길에, 장화 신은 고양이는 많은 들판을 지나갔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일꾼들을 불렀다. “국왕님이 오고 계세요. 당신들은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해야 해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일꾼들은 승낙했다.

p. 40-41 국왕이 지나갈 때 그는 감명받았다. 매우 많은 들판이 있었다. 그리고 먼 거리에 걸쳐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국왕이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말했다. 그 다음 들판에서도 국왕은 같은 말을 들었다. “후작, 자네는 부유한 사람이군. 이 모든 들판이 자네 것인가? 그리고 자네는 많은 일꾼들이 있구면.” 카라바스 후작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국왕님. 제 아버지의 들판들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장화 신은 고양이는 원숭이 인간의 집에 도착했다. 매우 오래된 곳이었다. 그것은 매우 더럽고 추해 보였다.

p. 42-43 그 고양이는 원숭이 인간에 대한 특별한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김새를 바꿀 수 있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그 집에 들어갔다. 매우 큰 원숭이가 있었다. 그 원숭이는 사람같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원숭이 인간님,” 장화 신은 고양이는 말했다. “당신 집을 지키기더러 찾아뵙고 싶어서요, 여러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맞아,” 원숭이 인간이 말했다. “하지만 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가 말했다. “당신은 큰 동물로만 변신할 수 있는 건가요? 작은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나요?” 장화 신은 고양이가 물었다. “난 어떤 동물로도 다 변할 수 있어,” 원

숭이 인간이 말했다.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어려운 일이 아냐.”

p. 44-45 장화 신은 고양이는 원숭이 인간에게 쥐로 변해 보라고 청했다. 원숭이 인간은 작은 갈색 쥐로 변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쥐를 쫓아가서 먹어버렸다. 이제 원숭이 인간은 없어졌다. 그 오래되고 더러운 성이 바뀌었다. 그것은 새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워졌다. 카라바스 후작은 그 성의 새 주인이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새 주인이 생겼어요. 그의 이름은 카라바스 후작이에요.” 그들은 모두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원숭이 인간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매우 못되게 굴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그들에게 부탁했다. “맛있는 음식으로 성대한 만찬을 요리해 주세요.”

p. 46-47 잠시 후에, 왕의 마차가 도착했다. 장화 신은 고양이는 나가서 그들을 맞았다. 국왕이 내려 왔다. 그는 공주를 도왔다. 카라바스 후작은 마차 밖으로 나왔다. 국왕은 생각하고 있었다. ‘후작은 결혼했나? 이 남자는 딸에게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카라바스 후작, 자네 결혼했나?” 국왕이 물었다. “안 했습니다, 국왕님. 하지만 저는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후작이 말했다. 그는 말하면서 공주를 쳐다보고 있었다. 장화 신은 고양이도 얼굴에 크게 미소를 지으며 거기에 있었다.

p. 48-49 국왕은 딸에게 물었다. “너 이 후작과 결혼하겠니? 그는 좋은 사람이야.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 좋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주가 말했다. 그날 밤 큰 축하연이 있었다. 곧 공주와 카라바스 후작은 결혼했다. 그들은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장화 신은 고양이와 놀았다. 그리고 장화 신은 고양이는 탁 트인 들판을 매우 좋아했다. 거기에는 잠을 쥐들이 많이 있었다. 농부의 막내 아들은 마침내 자신의 행운을 찾았다.

빨간 모자 소녀

【 제 1 장 】 할머니 댁에 가다

p. 54-55 옛날 옛적에 작은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작은 마을에 살았다. 그녀의 할머니는 멀리 있는 숲속에서 살았다. 할머니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 여섯 번째 생일에, 할머니는 소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빨간 모자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 빨간 모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소녀가 말했다. “천만에, 내 귀여운 아이. 네가 좋아하니 기쁘구나. 매우 예뻐 보이네.” 작은 소녀는 자주 모자를 썼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다.

p. 56-57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엄마가 그녀를 불렀다. 엄마가 말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단다. 심한 감기에 걸리셨어. 이 케이크와 과일을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렴.” “알았어요, 엄마.” 소녀가 말했다.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조심하게라, 빨간 모자야. 그 누구와도 말하면 안 돼. 길에서 벗어나서도 안 돼. 시간을 잘 보고.” “그렇게요.” 빨간 모자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빨간 모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모자를 썼다. 그녀는 케이크와 과일을 갖고 가면서 작별인사를 했다.

p. 58-59 가는 길에 빨간 모자는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었다. 숲은 매우 조용했다. 빨간 모자는 외로웠다. 얼마동안 걸은 후에, 빨간 모자는 멈추어 섰다. 그녀는 앞을 만한 바위를 발견했다. '내 작은 다리가 너무 지쳤어.' 그녀는 생각했다. '이 바구니도 무거워. 안에 많은 과일이 들었지.' 그때, 빨간 모자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굵고 추한 목소리였다. "누가 노래하고 있지?" 그녀가 생각했다. 그녀가 올라다 보았을 때, 늑대 한 마리가 보였다.

p. 60-61 빨간 모자는 그 늑대를 알지 못했다. 엄마는 그녀에게 아무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빨간 모자는 잊어버렸다. "안녕. 이름이 뭐니, 작은 소녀야?" 늑대가 물었다. "나는 빨간 모자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빨간 모자가 예쁘구나." 늑대가 물었다. "오늘 어디에 가니?" "난 할머니 댁에 가요." 빨간 모자가 말했다.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편찮으세요. 엄마가 할머니는 감기에 걸리셨다고 하셨어요." "네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는데?" 늑대가 물었다. "할머니는 숲속에 사세요." 빨간 모자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강가 옆 다리 근처에 사세요."

p. 62-63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서둘러야겠다. 할머니 집에 먼저 도착해야 해.' 늑대는 배가 고팠다. 늑대는 그녀를 잡아먹고 싶었다. "음, 난 지금 가야겠다." 늑대가 말했다. "가족이 날 기다리고 있거든. 할머니 댁에 잘 다녀와. 할머니가 곧 나오시길 바랄게. 잘 가, 빨간 모자." 그리고 나서 늑대는 빨간 모자의 할머니 집으로 재빠르게 뛰었다.

p. 64-65 이 때 빨간 모자는 바위에 앉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 옆에 꽃이 있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생각났다. '꽃들이 참 예쁘다. 할머니는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녀가 생각했다. '할머니에게 몇 송이를 꺾어 드려야겠다.' 그녀가 꽃들을 다 꺾었을 때 조금 춥다고 느꼈다. 그녀는 많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야겠다.' 그녀가 생각했다.

[제 2 장] 늑대, 빨간 모자를 잡아먹다

p. 68-69 늑대는 빨간 모자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늑대는 문을 두드렸다. 빨간 모자의 할머니가 말했다, "누구세요?" 늑대는 높은 음색으로 대답했다. "빨간 모자예요. 낮게 헤드리려고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할머니." 늑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라." 빨간 모자의 할머니가 말했다. "문이 열릴 거야."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너무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 늑대는 문을 열었다. 늑대는 할머니에게 걸어갔다. 할머니는 작고 토실토실 살이 쪼들었다. 할머니는 맛있어 보였다. 늑대는 할머니를 재빠르게 잡아먹었다.

p. 70-71 그리고 나서, 늑대는 할머니의 옷과 잘 때 쓰는 모자를 썼다. 늑대는 할머니와 닮아 보이도록 노력하면서 침대에 누웠다. 늑대는 참을성 있게 빨간 모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늑대는 빨간 모자까지 잡아먹을 준비가 되었다. 빨간 모자가 도착했다.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다. 빨간 모자는 놀랐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답이 없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바구니를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할머니 침대로 갔다. 할머니는 매우 달라 보였다.

p. 72-73 “할머니, 눈이 너무 크네요.” 그녀가 말했다.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지.” 늑대가 말했다. “할머니, 코가 너무 크네요.” 그녀가 말했다. “네 냄새를 더 잘 맡기 위해서지.” 늑대가 말했다. “할머니, 입도 커요.” 빨간 모자가 말했다. “너를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지.” 늑대가 외쳤다. “너는 할머니가 아니야. 너는 늑대야!” 빨간 모자가 소리쳤다.
빨간 모자는 도망갈 시간이 없었다. 늑대는 그녀를 잡았다. 늑대는 그녀를 한입에 먹었다. 이제 늑대는 배가 불렀다. 늑대는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잡아먹었다. 늑대는 다시 누워 잠에 빠졌다.

p. 74-75 한 마을 남자가 집에 가는 길이었다. 그는 빨간 모자의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흠… 그 할머니가 어머신지 궁금하군.” 그래서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렸네.’ 그가 생각했다. ‘할머니를 살펴봐야지.’ 거기서 그는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늑대가 빨간 모자의 할머니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 먹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남자는 칼을 꺼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늑대의 배를 갈라 열었다. 곧, 그는 늑대 안에서 빨간 옷감을 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배를 갈랐다.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빨간 모자가 늑대의 배 밖으로 기어 나왔다.

p. 76-77 “저를 구해 주셔서 고마워요.” 빨간 모자가 말했다. “늑대의 배 안은 아주 어두웠어요. 전 무서웠어요.” 그들은 함께 할머니도 끌어냈다. 빨간 모자의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살아 계셨다. “무거운 돌을 찾자.” 그 남자가 말했다. 그와 빨간 모자는 늑대 배 안에 돌들을 넣었다. 그리고 나서, 빨간 모자의 할머니는 갈랐던 배를 닫았다. 몇 분 후에 늑대가 눈을 떴다. “목말라.” 늑대가 말했다. “밖에 있는 웅덩이의 물을 좀 먹어야겠어.” 늑대는 물웅덩이에 갔다가 빠졌다. 늑대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p. 78-79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행복하고 감사했다. 그들은 그 마을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할머니는 빨간 모자를 꼭 인아 주었다. “네가 무사해서 기쁘다, 빨간 모자야.”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 길을 댄 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낯선 이들과 이야기해선 안 돼.” “알았어요, 할머니.” 그 작은 소녀가 말했다. 빨간 모자는 그날 밤 할머니와 지냈다. 그 다음 날 아침, 빨간 모자는 걸어서 집에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예쁜 빨간 모자를 썼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안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늑대는 다시는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숲을 통해서 행복하게 집으로 걸어갔다.